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전체인구의 45%)은 세계 1위이며 이들은 대부분 교육받은 청·장년층으로 기독교·불교 등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신비주의와 민간신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인철교수(한신대 종교학)는 <사회와 역사>(52집·문학과 지성사)에 발표한 '한국 무종교인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이 상당한 종교성을 띠고있다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뒤집어 주목받고 있다.

강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무종교 비율 45%는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 무종교인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36%) 프랑스(26%) 벨기에(15%)는 물론이고 일본(35%)보다도 높

한국 무종교인 45%... '세계 1위'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청·장년층과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가 없는 것이 현재의 추이"라고 지적했다. 1983년부터 10~30대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남성·사무/전문직 종사자·대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무종교인의 분포가 커지고 있다는 것.

강교수는 "무종교인 가운데 기존 종교로부터 이탈한 사람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무종교인이 종교를 갖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의 무종교 인구는 기독교·불교 등 제도권 종교를 거부하는 집단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관·삼매로 얻는 대비심 현대사회 악요소 치유"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천태사상' 주제 국제학술회의

"천태의 세계관인 삼천세계(三千世界)는 천태교의(天台敎義)에서 강조하는 실천적 수행법인 중관(中觀)·삼매(三昧) 등으로 채득될 수 있으며, 삼천세계의 동체대비심은 인공(人工)·정보(情報)·고령화(高齡化)로 대변되는 현대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대안이론이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도원)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천태사상의 실천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20일 타이베이에서 '현대사회와 천태사상'을 주제로 제1회 한중일 천태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이영자교수(동국대 불교학), 무라카미 유소박사(일본 대정대 학장) 등 4명의 국내외 천태석학은 이와같이 주장하며 보면, 특수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천태 수행법은 대중들에게 조화와 균형을 가르칠 수 있기에 천태도량을 대중교양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태불교의 실천적 다양성과 회통성"을 발표한 이영자교수는 "천태사상의 핵심은 중관(中觀)이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물의 참된 모습을 바로 보는 것(체관·諦觀)"이라고 말했다. 그릇된 현실에 집착하는 생활태도를 부정하고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교수에 따르면 우리들의 마음이 타자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할 때 동체대비심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나홀로'식의 독단은 남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도 결국에는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천태대사가 가르친 깨달음인 관득(觀得)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망심(忘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남과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한순간에도 놓지않고 행동하는 경지"라며 "이 경지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현대인이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말했다.

유소박사도 '참회·그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에서 "천태 수행관의 특징은 자기제어와 자기지향적 내면화의 끝없는 성찰의 과정"이라며 "현대인들은 천태 수행관에서 스스로 결박한 마음을 풀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태교의 중 사중삼매(四種三昧)에서 가르치는 지관(止觀)이아말로 신(身)·식(息)·심(心) 등의 조화를 통해 자기구제와 치유를 이룰 수 있는 원형이라는 것.

이를 위해 유소박사는 "천태사상은 평생 학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과 기관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대중들이

사찰에서 천태 수행법을 배우고, 자기구제와 치유법을 생활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림민박사(중국 불교문화연구소장)는 '천태법화 삼매의 삼삼삼(三三三)'에서 "천태교의 중 삼법무차(三法無差)란 마음·부처·종생 등을 차별없이 바라보는 보살의 경지"라며 "이 경지에 도달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환경을 정화하고 타종교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교수(동국대 역사학)는 '의천의 교학연구와 그 현대적 의의'에서 "교장을 간행하고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스님(1055~1101)의 교학연구 자서는 현대인의 귀감"이라며 "불교의 보편·특수성에 대한 균형있는 인식, 엄격한 비판 등은 대중들의 생활철학으로도 수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개원한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이영자교수등 10여명의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천태전적 역경, 년 2회 학술회의 개최등 한국천태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학술단체. 이번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3월 중 '현대사회와 천태사상'(불지사)으로 발간된다.



◇이영자교수



◇김상현교수



무대피아 사이버 기행 중국문화·돈황

중국의 조각·서예·도자기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 '중국문화'가 올해 초 북경대에서 문화사를 가르치는 쉰산(申山) 교수에 의해 오픈됐다.

'중국문화'에서 제공하는 정보중 불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돈황(Dunhuang) 유적지와 유물의 상세한 소개.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해상 그래픽도 제공돼 실제감마저 맛보게한다.

돈황은 366년부터 서하가 멸망할 때까지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에서 건너온 승려와 포교사들의 머문 거대한 불교 도시. 현재 남아있는 돈황 유적은 4~1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천천개의 천불동(天佛洞)으로 불리는 수많은 석굴사원이다. 따라서 돈황의 예술적 가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석굴의 벽면에 그려진 다양한 불화에서 시작된다.

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돈황석굴벽화는 총 80여점. 이중에서 보살의 얼굴이 둥근형으로 남아있는 수나라의 '보살상' (석굴 420호), 전생담중 부처님의 희생을 주제로 한 남북조시대의 '시비왕생담' (석굴 275호), 부처님의 열반을 옮긴 북량기(北凉期) 벽화 '열반도' (석굴 428호), '설법도' (석굴 272호) 등이 백미.

또 석굴 285, 196에 소장된 벽화들은 방문자가 석굴 입구에서부터 마우스를 이동해가며 석굴 깊숙한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한 3D(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구경할 수 있다. 이 석굴에는 부처님이 사슴으로 태어났을 때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므리가 자타가' 유머가 띤 문수보살에게 강론하는 '유마상', '천문도' (天文圖)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우산교수는 티베트 라사의 조강사원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다. 라사의 조강사원은 달라이 라마 등 수많은 라마승이 수행하는 티베트불교의 심장부.

<http://chineseculture.tqn.com/library/weekly/aa01098.htm>

이전 · 다음 소개 · 서문벽화 80여점 볼거리

"불교-기독교 사상적 통합 상호 차이점 존중서 출발"

심재용교수 '통합가능성' 제언

대동한 교세를 유지하며 비슷한 시기에 민중불교·민중신학을 전개했던 한국의 불교와 기독교. 세계적으로 보기도 한국의 특수한 종교상황이아말로 오히려 21세기 종교간 대화와 사상적 통합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학과 현실>(겨울호)에 '불교와 기독교를 넘어서-대화를 통한 통합은 가능한가'를 발표한 심재용교수(서울대 철학)는 이같이 불교

와 기독교의 사상적 통합 가능성을 제언했다.

심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 불교와 기독교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교로서 비슷한 교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인류의 화해와 상호보완을 위해 때로는 실질적으로 경쟁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불교를 개혁하려는 민중불교와 아시아 신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민중신학이 한국에서 동일

특했다. (02)921-5825

내달 28일 '선적연구' 모임

보조사상연구원이 2월28일 제1차 '선적(禪籍)연구' 모임을 갖는다. 보조스님의 선적(법집발행록필요방입사기)을 다룬 이번 모임에서는 이병욱 박사(고려대)의 '중국의 사상과 비교', 최연식 박사(서울대)의 '보조의 삼중문의 성격에 관하여' 등 논문 6편이 발표된다. (02)733-5315

리처드 기어 '2년내 출가' 밝혀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50)가 2년내에 영화배우를 그만두고 불교 승려가 될 결심을 밝혔다고 대만의 민생보(民生報)가 10일 보도했다.

기어는 대만의 이등휘(李登輝)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과거에 기독교인이었으나 항상 뭔가 잃어버린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선사(禪師)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며 "불교를 통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갖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어는 대만에서 '순례자'라는 사진전 시위를 열고 티베트 망명자 거주지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어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추종자로 널리 알려졌으며 티베트독립과 인권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ABC 방송의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 출연, 불교에 관한 특별대담을 가져 미국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또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백악관 앞에서 벌어진 '티베트독립을 위한 집회'를 이끌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비민주적인 법률제도를 꼬집은 영화 '레드 코너(Red Corner)'에서 김박박을 주인공으로 연연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국제여론의 심판대에 올려놓기도 했다.



오종욱 기자

日 선광사서 동계올림픽 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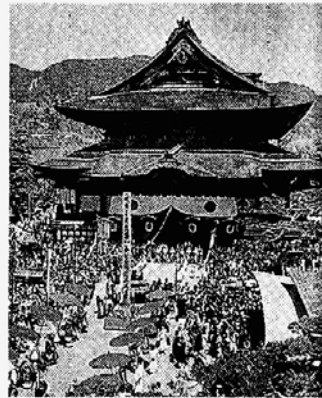
미국의 CBS가 제18회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일본의 명찰인 선광사(善光寺·주지 슈에이 와카오미)에서 중계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미국 지역 방영권을 가진 CBS는 경기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역사도 소개하기 위해 나가노시를 대표하는 선광사를 중계지로 결정했다.

슈에이 와카오미스님은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는 올림픽의 본질과 선광사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 일치해 CBS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CBS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6~22일까지 주요 경기를 방송할 계획이다.

1300년 전통을 가진 선광사는 일본 최초로 부처님을 봉안했던 고찰로 매년 1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日 나가노시의 선광사

'동대논총' 36집 발간

동국대학교 논문집 <동국논총> 제36집이 나왔다.

인문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에 걸쳐 총 18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이 논총에는 계환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의 '법장의 화염공관에 대한 소고'를 비롯해 황대연씨의 '아시아 환경협력 관계의 형성과 발전' 등 다양한 논문이 실려 있다. (02)260-3027

학술단신

'불교와 사회복지' 2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보각스님)는 <불교와 사회복지> 제2호를 발간했다.

청소년복지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집에는 류승무교수(중승대 사회복지학과)의 '불교 청소년복지의 방향 모색' 등 10편의 논문이 수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귀한 선물 - 광덕 스님, 무비 스님 저서 특판전

책방 여시아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선물을,대신 보내 드립니다.
(97.12.1~98.1.31)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싶은 불서와 보내 드리고 싶은 분의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02)737-0695, 732-1521

등기 우편료(평균 3000원) 중 절반은 여시아문에서 부담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1500원의 우편료만 더 내시면 됩니다.

광덕 스님 저서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불광 / 5,500원

삶의 빛을 찾아 불광 / 4,500원

반야심경 강의 불광 / 3,500원

행복의 법칙 불광 / 6,000원

보현행원품 강의 불광 / 4,000원

우리말 축원문 불광 / 4,000원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불광 / 5,500원

육조단경 불광 / 12,000원

메아리 없는 골짜기 불광 / 5,000원

지송 금강경 불광 / 2,500원

법회요전 불광 / 7,000원

천수 관음경 불광 / 3,500원

지장경 불광 / 5,000원

부모은중경 관음경 불광 / 3,500원

불자 수행일과 요전 불광 / 5,500원

불광 연화희식문 불광 / 5,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불광 / 3,500원

빛의 목소리 불광 / 6,000원

지송보현행원품 불광 / 3,500원

지장 기도집 불광 / 6,500원

광덕 스님 명상 언어집(전4권) 불광 / 20,000원

무비 스님 저서

금강경 오가해 불광 / 15,000원

천수경 민족사 / 4,500원

예문과 반야심경 불일 / 5,000원

나옹스님 어록 민족사 / 9,500원

백운스님 어록 민족사 / 10,000원

화엄경(현토 1~4) 민족사 / 130,000원

보현행원품 강의 민족사 / 6,500원

금강경 전서 민족사 / 25,000원

현수법장의 화엄학 개론 민족사 / 20,000원

금강경 강의 불광 / 5,500원

화엄경 강의 불광 / 9,000원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민족사 / 8,000원

그의 선물용 도서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 우리출판사 / 12,000원

100문 100답 선물과 감작편 상·하

일지 / 대한정사 / 각 8,000원

기도 일타 / 효림 /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 효림 / 3,5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 / 여시아문 / 7,000원

금강경 대강좌 이계열 / 여시아문 / 8,0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 여시아문 / 7,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 효림 / 7,000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정승석 / 대한정사 / 8,500원

삼국유사 1, 2 일련 / 숲 / 각 8,500원

법구경 김달진 / 현암사 / 8,000원

도술천에서 만났시다 장순용 / 세계사 / 6,000원

깨달음의 길 거해 / 담야간다 / 6,000원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연구소 / 산하 / 5,000원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 팩스:(02)737-0696

붓다 - 꺼지지 않는 등불 장부아출리에 / 시공사 / 6,000원

돼지 저금통 속의 부처님 권대용 / 국민서관 / 5,000원

오래된 미래 벨레나 노르베라-호지 / 녹취평론사 / 5,000원

내 아들 딸들이 세상은 너의 것이다 윤곡 이이 권.안경환 역음 / 문산 / 5,500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 청년사 / 6,500원

돌부처 이근후 / 여시아문 / 6,500원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슈미허 지음.김진욱 역 / 범우사 / 6,000원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윤리버 포피노-크리스 포피노 지음 / 정신세계사 / 6,000원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헤리스 지음.이종인 옮김 / 시공사 / 7,000원

진흙 속에 피는 연꽃 이슬기 지음 / 불광 / 3,500원

*달력: 산악 8,000원 / 한국의 사계 7,000원

*명상 노트:
와불 일어나시다 5,000원
남다라 크는 그리움 5,000원

